

60 100

세계를 품은 60년,
내일이 오늘이 될 때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이끌 100년,
한국외대의 내일은
날마다 새로운 도전입니다

HUFS POWER INTERVIEW

서울캠퍼스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2114
글로벌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Tel. 031.330.4114
<http://www.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역사와 미래가 만나는 오늘,
글로벌 주자들의 세대교체 현장
60년 역사의 배턴을 이어받아
100년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립니다

Contents

한국외대, 정상의 자리에서 세계를 이끌어 갈 100년을 준비하다	2
외대 60주년의 주역을 만나다	4
지치지 않는 한 우물 파기 33년, 평사원에서 대표이사로_송용덕 (주)호텔롯데 대표이사	4
'나는 왜 외대에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길고 긴 답변_양인집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해외사업총괄사장	8
한국외대, 선배들이 시작하고 후배들이 완성할 글로벌 과업_최종현 외교부 의전장	12
외대 100년을 이끌 미래를 보다	14
준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외대라는 글로벌 브랜드_박상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14
한국외대와 함께한 이십대, 그리고 두 개의 선물_오정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18
국제화 마인드, 외대인의 특별한 졸업장_오승준 아산병원 핵의학과 부교수	22
나눔과 상생의 외대인, 45개 언어를 기반으로 전 세계 소통 네트워크 마련에 앞장서다	26

한국외대, 정상의 자리에서 세계를 이끌어 갈 100년을 준비하다

29

QS세계대학평가 현대어문학분야 전세계 29위

영국의 권위 있는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에서는 매해 세계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학문 분야별 평가결과를 발표해왔습니다. 지난해 현대어학 분야 50위권이었던 우리대학은 올해 29위로 올라서는 쾌거를 이루었는데 이는 국내 대학순위로는 1위에 해당하는 성과이며 국내 최고의 역량을 가진 대학으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반세기 이상 이어온 외국어에 대한 집요한 연구와 폭넓은 교육이 맺은 결과로 분석됩니다.

1

대학평가 No.1 정상을 누리다

2009-2013 중앙일보 대학평가 국제화부문 5년 연속 1위
2014 조선일보 QS 아시아 대학평가 아시아대학 국제화 종합순위 국내 1위, 아시아 9위

LD/LT

국내 유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LD, LT학부 신설

LD(Language & Diplomacy)학부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고급 전문지식 특성화교육프로그램 LD학부는 향후 국제무대에서 외교관으로 활약할 국내 최고의 인재들을 선발, 글로벌 엘리트로 양성합니다.

LT(Language & Trade)학부

2015학년도에 신설될 LT학부는 특성화된 언어교육과 첨단인 통상지식을 융합하여 이론적 토대 위에 현장 학습 활동 경험을 통한 실무적 지식을 겸비한 종합 전문인을 육성합니다. 100% 원어민강의와 외국 대학교 교환학기 및 해외 인턴을 의무화하여 글로벌 산업 및 통상 전문가로 지도합니다.

Internship

대학생 최고의 경험 -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재학생들에게 해외주재대사관과 해외무역관, 해외문화홍보원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도록 하는 한국외대만의 차별화된 커리큘럼입니다.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 인턴십은 외국어에 능통한 3, 4학년 학생과 대학원생을 선발, 해외에 있는 대사관에 파견합니다. KOTRA 해외무역관 인턴십 과정은 매년 전공 외국어에 능통하고 실력과 품성을 고루 갖춘 100명의 학생을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들은 전세계의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하며 경제 리서치 통번역 업무, 국내기업 현지무역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6개월의 인턴과정이 끝나면 12학점을 인정받으며, 근무성적에 따라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Convergence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공동교양학부 운영

융복합 시대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양교의 특성화된 학문 분야를 융합하여 어문학, 지역학, 인문학과 예술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동교양학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수강신청 및 교과목 운영 등에 있어서 기존의 단순 학점교류 방식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합니다.



지치지 않는 한 우물 파기 33년, 평사원에서 대표이사로



송용덕
(주)호텔롯데 대표이사
영어 73

1979년 서울 중구 소공동에 한 호텔이 문을 열었고, 이곳에 부푼 가슴을 안고 한 청년이 입사했다. 그리고 그는 33년 후 이 호텔의 대표가 되었다. 한국외대 영어과 출신의 송용덕 롯데호텔 대표이사 이야기다. 일찍이 호텔 산업의 유망성을 직감하고 롯데호텔에 입사한 그는 2010년 국내 호텔업계 중 최초로 모스크바 호텔을 건립하고, 2012년 돌아와 롯데호텔 대표이사가 되었다. 선생님께서 짚어주는 시험 문제를 암기하기 쉽지만,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를 스스로 아는 '감'은 태생의 것이 아닐까. 그는 호텔 입사 이후 외길만을 달렸다. 청년의 달뜬 방향도 사치였다. 중년의 달콤한 휴식도 없었다. 대신 롯데호텔과 그의 역사는 동일선상에 놓이게 되었다.



“세계 곳곳에서 우연히 한국외대 동문들을 만나면 ‘우리 동문들이 다들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지요.”

HUFS 한국외대가 설립되었을 당시 영어과, 불어과, 중국어과, 독일어과, 러시아어과 등 5개 외국어 학과로 출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뜻을 품고 한국외대 영어과를 선택했으며, 외대는 그 꿈을 어떻게 지지 해주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 대다수가 영어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직감적으로 영어를 전공하면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섰던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국외대에 입학해서 졸업하는 순간까지 학과 생활은 적절히 순탄하면서 젊은이의 고민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졸업 이후 각계 각층, 세계 곳곳에서 우연히 동문들을 만났을 때 ‘우리 한국외대 동문들이 다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지요.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단순 친목도모나 동문으로서의 그것 이상으로 저의 학업 및 사회 활동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HUFS 1979년 롯데호텔에 사원으로 입사해서 2012년 2월 롯데호텔 대표이사로 취임한 ‘한 우물 파기’ 행보가 눈에 띕니다. 대학 재학시절에 특별한 계기나 남다른 포부가 있었나요?

그 시절을 돌아보면 각별한 인연이 한 분 있어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한국외대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하시고 일찍이 한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시던 인척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경주 코오롱 호텔 사장, 경주대학교 호텔경영대학장을 역임하신故 오문환 학장님이셨는데, 그분의 영향을 받아 호텔 산업이 생소하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호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제가 롯데호텔의 평사원에서 총지배인을 거쳐 대표이사직에 오르게 된 행보가 그 분을 꼭 닮아있네요. 그 분도 평사원에서 시작해서 특급호텔 사장이 되셨거든요.

HUFS 2010년 러시아 모스크바 지점을 열면서 국내 호텔 중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했는데, 많은 준비를 요구하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진출 당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국내에서도 호텔 하나 여는 게 예상일이 아니지요. 머나먼 타국에서 국내 호텔 중 1번 타자였으니 어려움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치안, 노동생산성, 서비스 마인드 등의 문제로 롯데호텔 모스크바 개관은 물론이고 모스크바에서의 생활부터가 애로사항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호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비스에 대한 개념인데, 이게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모스크바 호텔 직원들이 부족함이 있는 만큼 새로운 것에 대한 흡수력도 그만큼 높다는 것이었지요. 저희도 좀 더 기운을 냈고, 러시아 현지의 직원들도 매우 의욕적으로 임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예상보다 빨리 서비스 마인드와 노하우를 흡수시킬 수 있었지요. 현재 롯데호텔이 모스크바 내 최고의 호텔로 인정받고 있으니, 그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오히려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으로 지켜야 합니다.”

HUFS 호텔은 소비자가 값을 지불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면 안될 것 같아요. 호텔 경영자로서의 가치관이 궁금합니다. 거창하게 가치관이라고까지 말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호텔 경영자로서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점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을 주는 것’이지요. 너무 당연해서 시시하게 들릴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한 후, 그 기대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상의 만족과 감동을 주는 것이 호텔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서비스가 아닐까 해요. 항상 모든 것을 고객 중심에서 생각하면서 고객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지요.

HUFS 과거와 지금의 외대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텐데, 교육·시설 등에 걸친 눈부신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요?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서울 캠퍼스만 있었거든요. 80년에 용인에 글로벌 캠퍼스를 연 것이 외대 발전의 토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 글로벌 캠퍼스의 역사도 30년이 넘었네요. 최근 ‘세계를 품은 60년, 세계를 이끌 100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글로벌 캠퍼스에 국제회의실, 체육관, 컨퍼런스 홀, 교수 연구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백년관이 완공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나는 길에 본교의 높직한 건물들만 봐도 상전벽해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어요. 슬로건처럼 앞으로 세계를 이끌 융복합 대학으로서 외대의 힘찬 도약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외대에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융통성과 포용력을 길렀습니다. 제가 세계의 무대로 나아갈 때, 두려움을 없애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지요.”

HUFS 외대가 올해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외대 60년을 이뤄낸 외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큰 자부심은 무엇이며, 본인에게 외대 60주년이 주는 의미를 말씀해주세요.

벌써 60주년이라니, 함께 나이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외대는 저에게 외국 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융통성과 포용력을 길러주었습니다. 이는 제가 사회에 진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를 무대 삼고자 할 때,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지요. 외대 60주년은 대한민국에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전도유망한 청년들을 많이 배출해냈다는 데 그 의미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로벌 호텔 브랜드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저에게도 매우 감사한 일이고요. 사회 곳곳에서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 우리 동문들의 모습을 앞으로 계속 만나볼 수 있기를 항상 바랍니다.

‘나는 왜 이대에 와서’ 라는 질문에 대한
 깊은 고민과 답

양인집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해외사업총괄사장
 일본어 76



지금이야 워낙 브랜드가 다양해졌지만 예전에는 소주하면 진로였다. 1924년 출시된 이후로 소주의 대명사가 된 진로는 서민들과 애환을 함께했다. 이후 회사가 도산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가 하이트맥주(주)에 인수되어 하이트진로로 회사명도 바꾸고 종합주류회사로 변모했다. 이때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해외사업을 총괄하게 된 양인집 사장. 외대 일본어과를 졸업한 그는 철옹성 같았던 일본 주류계의 벽을 허물며 외국 브랜드 최초로 현지 시장 top10에 진입했다. 학부 시절 언어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정서, 한 나라를 깊이 알려는 열정을 체화했다는 그, ‘된다’는 신념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그의 말은 그래서 진짜다. 현지 근무 중인 그와의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기본 폰트로 작성된 답변들은 진지하면서도 힘찬 필체를 상상하게 했다.



HUFS 일본어과를 졸업한 후의 행보가 눈에 띄네요. 금융업계에서 주류 회사로 선회한 이유와 그 과정이 궁금한데요, 일본어과를 전공한 점이 어떤 영향이나 도움이 되었나요?

보험회사 사장을 마치고 쉬고 있을 때 현직 제안을 받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매력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1980년대에 일본에서 근무했을 때 일본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지 못한 데에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역사,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인 일본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두 번째로, 소비재를 다루는 B to C(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기업경영은 처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소비자의 경향과 시장을 분석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유통망 확보를 통해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선전광고로써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촉발시키는 일에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회화능력을 필두로 일본의 문화와 정서 등 전반적인 학부 전공지식이 도움이 되었지요. 이러한 배경이 없었다면 마음이 있어도 선택 도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HUFS 지난 해 외대에서 특강을 가졌지요. 76학년 새내기 시절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는데,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찾은 모교는 어떤 모습이던가요?

모교에서는 2006년, 2011년, 2013년 이렇게 세 차례 특강을 가졌어요. 가끔 일본과 한국에서 특강을 할 기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모교에서 하는 강연은 제게 특별합니다. 갈 때마다 신축 건물이 들어서있는 등 외형적인 발전을 보는 것도 기쁘지만 젊은 후배들을 대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설레지요. 제가 3년 이상 생활했던 나라가 4개국이고, 그 가운데 크고 작은 회사의 사장으로 지낸 기간이 20년입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지혜 등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크지요. 후배들도 늘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수준 높은 질문으로 피드백을 주었고요. 요즘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후배들이 국제사회에 나가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춘 멋진 리더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연에 임했습니다.

Hope is ~~nowhere~~
now here!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HUFS 일본 주류시장에 진출하는 일이 녹록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시작에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떠셨습니까?

제가 사장으로 취임했을 때 진로소주는 이미 브랜드 파워가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전 사장님들의 공로였지요. 대신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었어요. 일본의 주류시장이 1995년을 정점으로 매년 축소 경향에 있었고, 당시 회사 실적도 6년째 감소 추세였거든요. 퇴보 기조에 있는 회사를 성장세로 돌려놓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후좌우가 다 어려워 보일 때가 찬스이기도 했지요. 희망이 어디에도 없어 보일 때를 영어로 말하면 'Hope is nowhere!'입니다. 그런데 'nowhere'의 띄어쓰기를 달리하면 'now here'가 돼요. 지금 여기서 노력하면 된다는 뜻이지요. 기린, 아사히 등 토종 브랜드의 강세로 특히 진입이 어려운 일본 맥주시장에 도전한 결과 지금은 소주보다 맥주가 더 많이 팔립니다. 내쳐 막걸리 붐도 주도해보았구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봅니다.

HUFS 현재 진로소주가 일본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중 유일하게 Top10에 진입한 케이스이지요. 지난 4월에는 중남미 시장 입성에도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향후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사업 계획이 궁금합니다.

세계적인 주류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출시표를 던졌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진로만이 Top10에 들었다는 것은, 진입장벽이 높기로 소문난 일본 시장에서 유일하게 현지화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나라마다 시장의 성격도 다르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주류(酒類)도 달라요. 그러나 주류라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상재(商材)입니다. 희로애락,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늘 함께하는 존재이지요. 기뻐서 한잔, 슬퍼서 한잔, 비가오니 한잔, 주말이니 한잔 하지요.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해 폭넓게 소비되는 재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때는 현지 맞춤형 상품개발과 유능한 현지인 유통망 확보의 기본전략에 충실해야 해요. 아프리카에 진로와인을 수출하고, 이슬람 국가에 하이트맥주를 수출하고, 전 세계 60여 개국에 진로소주를 수출하는 등 본사의 성과는 현재진행형입니다.

HUFS 글로벌시대에 한국외대 학생들은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봅니다. 외국어 전공을 기반으로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나는 왜 외대에 왔는가?'라고 자문해보세요. 제가 걸어온 길이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긴 답변입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고도 우리 학교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공부하지 않는다면 자기부정이지요. 우리 학교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를 간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대학입니다. 요즘은 조금만 노력하면 교환학생이나 유학의 기회도 얼마든지 열려있는 복 받은 시대이고요. 아르바이트를 하건 용돈을 절약하건 방향 때마다 여행을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젊은 날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귀한 투자거든요. 자기가 공부하는 언어권에 가서 부딪혀 보면 자신이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할 지 감도 옵니다. 외국어도 세 가지는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전공불문하고 영어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동양어 하나, 서양어 하나쯤 유창하게 구사하면 어디에 가도 대접을 받을 수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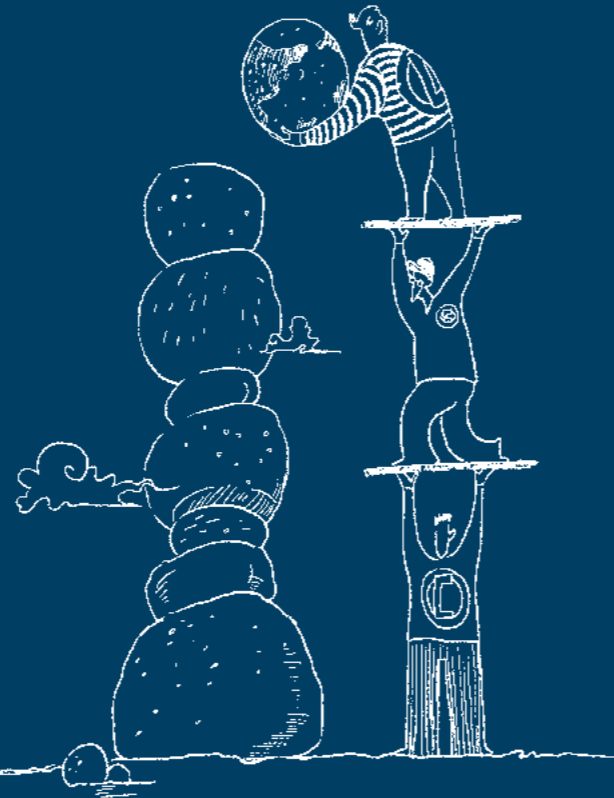
외대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자부심

HUFS 외대가 올해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외대 60년을 이뤘던 외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큰 자부심은 무엇이며, 본인에게 외대 60주년은 어떤 의미인가요?

외대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저의 자부심입니다. 제게 주어진 '개교 60주년 기념 외대대상'은 커다란 명예 정도를 넘어 과분하게 느껴지네요.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 학교가 여기까지 온 데는 김흥배 설립자부터 역대 총장, 교수, 동문 등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지요. 이제부터는 100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를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학교, 재단, 동문회, 외대인 모두가 노력하는 거지요. 선배들의 업적을 넘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속출하리라 믿으며, 교수님들의 활발한 논문작성과 연구활동도 기대합니다. 흔히들 Leadership을 강조하는데 저는 followership이라는 조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라가는 사람의 역할도 이끄는 사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와 동문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내가 속한 집단이 끝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서로 이끌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국외대, 선배들이 시작하고 후배들이 완성할 글로벌 과업

청와대 의전 업무를 책임지고 대표하는 의전장의 고충이야 말해 무엇일까. 일찍이 외교관의 꿈을 품고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한 최종현 의전장은 외대가 제공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고, 졸업 후에도 자를 댄 듯 이 목표를 향해 곧장 걸어왔다. 가장 최근에는 세계 유일의 국제회의인 '세계 의전장회의'를 서울에서 유치해 전 세계 의전들을 모시고 한국의 예를 알렸다. 499가지를 체크해도 한 가지에서 놓치면 놓친 것이라는 엄격한 그의 마음이 짐처럼, 짧고 목직한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HUFS 지난해 5월 외교부 의전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스무 살 때 출발해 마침내 도달한 목적지처럼 느껴지는데요, 외대는 이 긴 여정에서 어떻게 힘을 보태주었나요?
외대는 특히 개척정신을 함양시켜 주었다고 봅니다.

HUFS 외대 학부생 시절 꿈에 대한 확신을 얻은 계기나 특별한 순간이 있었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외대가 제 공해주는 여러 여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대학시절을 보냈습니다.

HUFS 의전장이라는 직함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고된 업무의 연속일 것 같은데, 현장에서 어떤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는지. 돌발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의전은 한마디로 미분(微分)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에 오래 신경 쓰다보면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어느 정도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HUFS LD(Language & Diplomacy)학부 개설 등 외교 분야 관련 한국외대의 약진을 지켜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교가 설립목적은 훌륭히 달성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HUFS 외교관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서서 뜻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HUFS 외대가 올해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외대 60년을 이뤄낸 외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큰 자부심은 무엇이며, 본인에게 외대 60주년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우리나라는 수출 등 대외지향적 접근을 통해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한 성취를 이루는데 있어 외대인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현
외교부 의전장
정치외교 76



준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외대라는 글로벌 브랜드

지난 4월 오바마 미대통령의 경복궁 방문에 함께하면서 화제가 된 이가 있다. 깊고 너른 역사문화지식을 유창한 영어로 풀어내 오바마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그는 한국외대 국제학부의 박상미 교수다. 하버드 대학원에서 문화인류학 석박사 과정을 이수한 그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으로서 지난해 12월 김장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이끈 주역이기도 하다. 인류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우리의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던 누군가의 말은 바로 그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박상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GLOBAL BRAND HUFES

“선택의 이유 외대, 자유를 주고 스스로 고민하게 만드는 곳”



HUFES 지난 4월 방한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전을 맡은 당시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점이 있었나요?
처음에 문화재청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평소 문화유산 관련 국제협력 분야 일을 해 왔던 터라, 별 고민없이 기회가 된다면 해보겠다고 했지요. 서너 사람 추천된 분 가운데 백악관에서 직접 선택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과 하버드 대학원 재학 시기가 비슷한 점과 기타 미국에서의 교수 생활이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지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방한 당시 세월호 사고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었어요. 예정되어 있던 공연과 체험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생각보다 제 역할이 커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굉장한 부담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전혀 부담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워낙 지적인 면모가 강한 분이어서 동료 학자를 대하듯 편안한 마음으로 안내를 할 수 있었습니다.

HUFES 교수라는 직업을 선택하면서 특별히 외대와 함께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외대의 특성이 자유롭지만 책임을 요구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정체성이나 분위기가 제가 하고 싶은 일과 맞아 떨어지면서 저에게는 참 좋은 환경이 되었어요. 외대는 어떤 고정적인 역할 안에 학생을 가두지 않고 창의적으로 자라고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토양이에요. 외대 졸업생들이 사회 도처에서 다양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고정된 틀을 제시하지 않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연구나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거든요. 게다가 제 소속이 인류학이나 단일학과가 아닌 국제학부이다 보니 좀 더 열린 사고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 국제학부적 성격에 맞게끔 제 일도 진행되어온 것 같네요. 한마디로 제 적성과 외대의 지향점이 조화로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HUFES 현재 외대 교수로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직을 수행하시는데 있어 어떤 시너지나 상호보완점이 있나요?
저의 대외 활동과 학교에서의 교육은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지요. 예를 들어 제가 유네스코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미리 그에 관한 정보를 줍니다. 요즘에는 웹캠을 통해 유네스코 회의를 실시간 중계해서 일반인들도 볼 수 있거든요. 회의 전에 나온 의제를 수업시간에 알려주고 회의에 다녀오지요.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이 취한 입장과 그 이유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하다보면 그보다 더 좋은 공부가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실제 국제회의에서 토론과 의결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고 생각하지요.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문화인류학의 개념이 실제로 의제에 나올 때 학생들이 굉장히 신기해해요. 학생들 스스로가 얼마나 중요하고 유용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요.

HUFES 많은 학생들의 롤모델로서 진로와 관련된 고민 상담이나 면담 요청도 수시로 받을 것 같아요. 인생 선배이자 실무자로서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점이 있다면요?
신입생들은 영어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국제학부의 경우 이민이나 유학 경험으로 영어를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고, 국내에서 열심히 배운 학생들도 있어요. 가끔 학생들이 영어를 더 배우기 위해 휴학을 한다고 하면 저는 대부분 말려요. 영어는 현장에서 쓸 때 가장 빨리 쓰는 법이거든요. 학생들의 현장은 강의실이고,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자연히 늘게 된다고 말하지요. 그래도 조금 급해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정말 열심히 해봤어?” 라고요. 영어를 원어민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충분하거든요.
요즘에는 특히 국제기구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국제학부 졸업만으로 그쪽으로 곧장 연결되기는 어려워요. 학부생으로서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는 일이 중요하지요. 예를 들면, 방학 때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인턴, 유급 인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보내는 모든 시간이 고스란히 이력서의 한 줄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장기적인 계획표를 짜라고 조언하지요. 자원봉사 인턴이건,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히 임하다보면 나중에 자신을 적극 추천해줄 멘토를 만날 확률도 높아집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HUFES 아직까지도 문화인류학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문화인류학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문화간에는 다양성과 공통성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인류로서 가진 공통적인 측면이 있고, 각 지역의 역사,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문화가 있지요. 문화인류학은 두 가지를 함께 연구해서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깊이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실용적으로는, 문화 간 소통을 도모하는 학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1세기에 들어 문화 간 접촉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문화인류학은 다소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들에 답하는 동시에 또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대에는 문화인류학과가 따로 없어요. 제가 강의하는 두 과목 중 문화의 이해는 문화인류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문화와 세계화는 이를 세계화의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과목이지요. 저는 문화인류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이 전공을 불문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인류학적 감수성은 학생들이 장래에 국제 사회에서 일할 때 굉장히 유리한 요소거든요. 또한 문화 소통은 좋은 뜻에 기술적인 요소가 더해져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기반이 되는 지식이나 방법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HUFES 앞으로의 연구 목표나 도전하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김장 문화에 이어 현재 농악을 등재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나라 주도 하에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4개국이 공동 신청한 줄다리기가 있는 데요, 이 건은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문화 유산을 등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등재 신청 경험이 부족한 나라를 문화 ODA(공적개발원조: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차원에서 도와주는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 공동 등재를 추진하는 일에도 참여하고 싶고요. 2012년에 북한도 무형유산 협약에 가입했는데 아직 등재된 유산은 없어요. 향후 북한이 함께 등재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이 의미가 크다고 봐요. 남북 관계가 전체적으로 경색이 된다 해도, 문화유산이 얼마든지 소통의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네스코의 궁극적인 지향점도 평화거든요. 문화, 사회, 과학에 걸친 전반적인 노력이 모두 이를 위한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평화로 나아가는 것은 유네스코의 미션이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해요. 저는 다양한 일을 하는 것보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에 교수 생활 20년 동안 대외 활동은 문화유산 관련 일을 주로 해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네요.

HUFES 미래를 설계하고 이뤄 가는데 외대인만의 강점이 있다면요?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 학교가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해서 꿈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토양이라는 것이 가장 큰 강점 아닐까요. 물론 많은 부분을 개인의 자유에 맡기면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은 있어요. 대신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지요. 외대라는 브랜드는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데 확실히 유리하고요.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회의에 참석했을 때 동문을 만나게 되는 일이 많아요. 굉장히 반가운 한편,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곳에서 롤모델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우리의 큰 자산이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서 졸업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는 본인에게 달려있지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스스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학생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용감하게 펼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남북한 공동 등재 등을 추진할 때 학생들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로 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대라는 브랜드 자체만으로 국제 활동을 하는 데 유리해요.”

한국외대와 함께한 이십대, 그리고 두 개의 선물



오정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법 01

2010년 11월, 연일 코트 깃을 여미게 하는 강추위가 이어지던 중에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법무행정에서 수석을 차지한 합격자가 사법고시에 연이어 합격하며 행사, 고시 2관왕의 영광을 안은 것. 놀라운 사연의 주인공은 외대 법학과 출신 오정화씨. 밥 먹는 시간도 아끼느라 비빔밥을 먹어가며 준비해야한다는 어려운 시험이었다.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무관으로 근무 중인 그는 서울 출장길에 빠듯하게 넣은 인터뷰 약속을 지키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나타났다. “와, 여기 원래 운동장 있던 자리 아니었나요?” 몇 년 사이 몰라보게 달라진 모교를 구경하느라 인터뷰는 잠시 뒷전이 되었다. 20대의 청춘을 오롯이 외대와 함께한 그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HUFS 두 가지 시험에 모두 불기 전까지 긴 시간을 외대와 함께 했는데, 외대는 어떻게 그런 목표를 풀을 수 있게 해주었나요?

제가 외대에 2001년에 입학해서 2008년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까지 학교를 오가며 시험을 준비했으니까 제 20대의 대부분을 외대와 함께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외대에 입학하자마자 훌륭한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신입생 때부터 큰 포부를 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시합격률도 높고 각계각처에서 활약하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부러움 반, 주눅 드는 마음 반이었는데 저 나름대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서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생겼지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HUFS 당시 행복한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이후 어떤 선택을 하셨고, 현재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당시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5급 공채에 운 좋게 동시 합격한 덕분에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애초에 양쪽 모두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준비를 했던 것도 있었고요. 법조인이나 공무원 모두 나라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명감과 보람을 함께 느끼며 일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정말 끝까지 고민이 되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약간 변수가 있었어요. 두 시험 모두 연수를 거쳐야 했는데,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연수를 마치고 나면 바로 부처에 배치되면서 유예가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사법연수원에 먼저 입소해서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마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관으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고시를 법무행정 직렬로 합격해서인지 송무 담당관실에 배치되어 법원출석이나 변호사 선임 등 소송대응을 하고 있어요. 공정위 소속직원 자격으로 직접 소송을 수행할 기회도 주어져 사법 연수원시절 배웠던 법적지식 및 절차 등에 관한 경험을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고요. 제 선택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HUFS 요즘 외대학생들은 이중전공이나 부전공 중 하나를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데, 법과대학만은 예외라고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법과대학생들의 고충을 특별히 배려하고 꿈을 지지해주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재학 당시 학부생 신분으로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법과대학 측에서도 이러한 점을 잘 아시니까 학생들의 성적이나 과제에 대한 부담을 많이 이해하고 다독여주셨어요. 또 고시반 운영도 충실해서 학교에서 고시를 준비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고요. 법학 특성상 공부해야 할 과목도 많고 교과서 무게와 정비례하던 무시무시한 시험범위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전공학점 또한 타과에 비해 매우 높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법과대학은 이중전공이나 부전공에서 면제 혜택을 받았는데, 저는 외국어 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게 억울해서 영어 부전공을 무리하게 이수했어요. 전공학점과 필수교양을 뺀 모든 학점을 부전공으로 쓰고도 뽐뽐해서 계절학기도 이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HUFS 외대의 법학과는 타 대학 법학과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외대 법학과는 인원이 200명 정도로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 또한 법학과 내부에 민사법학회, 형사법학회, 기업법학회, 국제법학회 등 학회가 많아서 전문적인 학문연구도 가능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네요. 다른 대학 법학과내에도 학회가 많겠지만 특히 국제법학회는 외대의 특성상 깊이 있는 활동으로 명성이 높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무리해서 영어 부전공을 했던 것도 외대 학생들로서의 특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지요. 제2 외국어와 매우 밀접한 환경이라는 점은 전공에 관계없이 외대인의 가장 큰 강점 가운데 하나인 것 같네요.

HUFS 취업난에 시달리며 초조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 중인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외대에 입학한 이상 이미 여러분의 실력은 검증된 것이므로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취업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가끔 그 어려운 취업에 성공하고도 다시 시험 준비로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자기 신념에 따라서 결정한 길을 얼마나 꾸준히 잘 걸어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다만 기왕에 시험을 준비할 생각이라면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게 반드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HUFS 외대를 준비하는 입시생들에게 외대인으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법전을 파고들 때는 거기에만 집중하느라 잘 몰랐어요. 영어 부전공을 하면서 어문계열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되었지요. 외국인 교수님들과의 교육 기회와 다양하게 주어지는 유학 기회를 활용하는 어문계열 학생들을 보면서 '이런 것이 전문 교육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 순간이 있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외대에서만 가능한 특화된 교육 시스템과 교수님과 선배들의 노하우를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선택한 길을 얼마나 꾸준히 걸어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HUFS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이루어 가는데 외대인이 가진 강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외대인은 전 세계에 퍼져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길을 개척한 선배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후배들이 무한한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과정을 잊지 않고, 후배들에게 귀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관이자 외대인으로서 공정하고 긍정적인 경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사법, 행정고시 동시 합격,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았기에 받은 두 가지 선물”



국제화 마인드, 외대인의 특별한 주거장 교보.

2011년 의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국내 연구팀이 파킨슨병 조기진단 검사에 쓰이는 방사성의약품 제조 신기술을 개발해낸 것이었다. 기존의 생산량을 40배까지 끌어올려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하며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의료 발전에 한 획을 그었다. 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 오승준 교수팀이 퓨처캠(주) 지대윤 박사팀과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룬 공동 성과로, 현재 국내 여러 의료기관에서 실용화되고 있다. 업적의 주역인 오승준 교수는 한국외대 출신이다. 그런데 의아했다. 외대에는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 그의 전공은 다름 아닌 화학과였다. 화학과 출신의 의학교수라니? 이러한 상대의 반응이 익숙하다는 듯 오승준 교수는 미소를 머금었다. 학부생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야기가 무척 궁금해졌다.

오승준
아산병원 핵의학과 부교수
화학 87





“외대의 자연과학에서부터 어학에 이르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국제적 경험은 저를 비롯한 외대 졸업생이 국내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되어 주었습니다.”

HUFS 외대 화학과 출신이신데 현재 핵의학과 의학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핵의학 분야에 종사하게 되기까지 외대의 환경이나 전공이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외대에는 의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외대 출신이라고 하면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래 의학을 전공했으리라 생각하시는 거지요. 겉보기에는 외대와 의학, 좀 더 세부적으로 핵의학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대의 자연과학에서부터 어학에 이르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국제적 경험은 저를 비롯한 외대 졸업생이 국내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되어 주었지요. 외대에서 배우고 익힌 화학 전공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언어적 배경은, 핵의학과가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1990년대부터 제가 핵의학에 기여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외대의 특수한 교육 환경이 아니었으면 어려운 일이었으리라 생각해요.

HUFS 외대에 와서 얻은 뜻밖의 수확이 있다면요?

외대에 진학 후 얻은 예상치 못한 수확은 국제화의 마인드입니다. 외대가 외국어대학교인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막연한 예상과 실제의 체감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어요. 처음 얼마간은 캠퍼스를 거닐다보면 제가 마치 유학을 와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외대에는 다양한 어학 배경을 가진 국내 학생과 외국인 학생들이 어울려서 학습을 하는 독특한 배경이 있지요. 토종 국내파인 제가 그렇게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가치관을 교류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한창 배움의 시기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경험을 한 셈이에요.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익힌 국제화 마인드는 현재 국내 의학의 국제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HUFS 양전자 단층촬영(이하 PET)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업적을 냈는데, 학부 시절부터 이러한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었나요?

사실상 학부 때에는 제가 장차 핵의학 분야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갓 이십대 초반이었고, 당시에는 요즘처럼 대학 진학과 동시에 미래를 걱정하는 분위기도 아니었지요. 진로에 대해 별다른 고민 없이 그저 전공이 재미있고 좋아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학부 때 배운 화학 지식을 기반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핵의학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 학부 시절의 전공이 현재의 기초가 되어 주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HUFS 현재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국내 여러 의료기관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과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제가 처음 핵의학,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방사성의약품 관련 업무'를 시작했던 게 1990년대였어요. 그로부터 20여년이 경과한 지금의 기술은 매우 발전했으며 현재에도 예측이 어려운 정도의 빠른 속도로 발전중입니다. 현재 핵의학 및 관련 진단 기술은 인체 질병의 조기진단에서부터 치료에까지 널리 실용화되어 있어요. 질병을 잘 치료하는 것이 차선이라면 최대한 빨리 발견하는 것은 최선이지요. 지금은 아주 작은 병소의 조기진단을 통하여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빠르게 하고,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정확하고 신속한 치료를 통한 환자들 의 삶의 질 향상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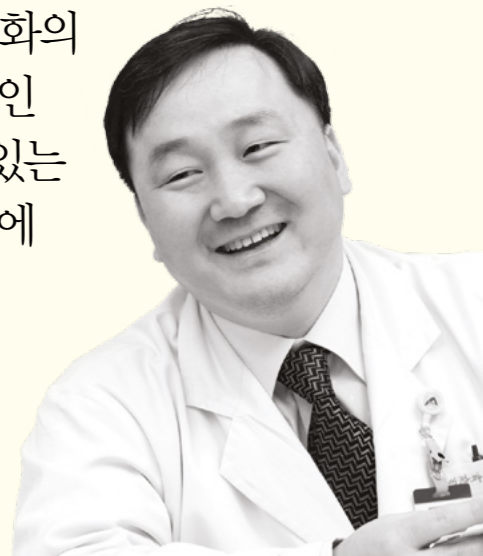
HUFS 화학과는 직업선택 분야가 매우 넓어서 동기들도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을 것 같네요. 화학과 진학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당부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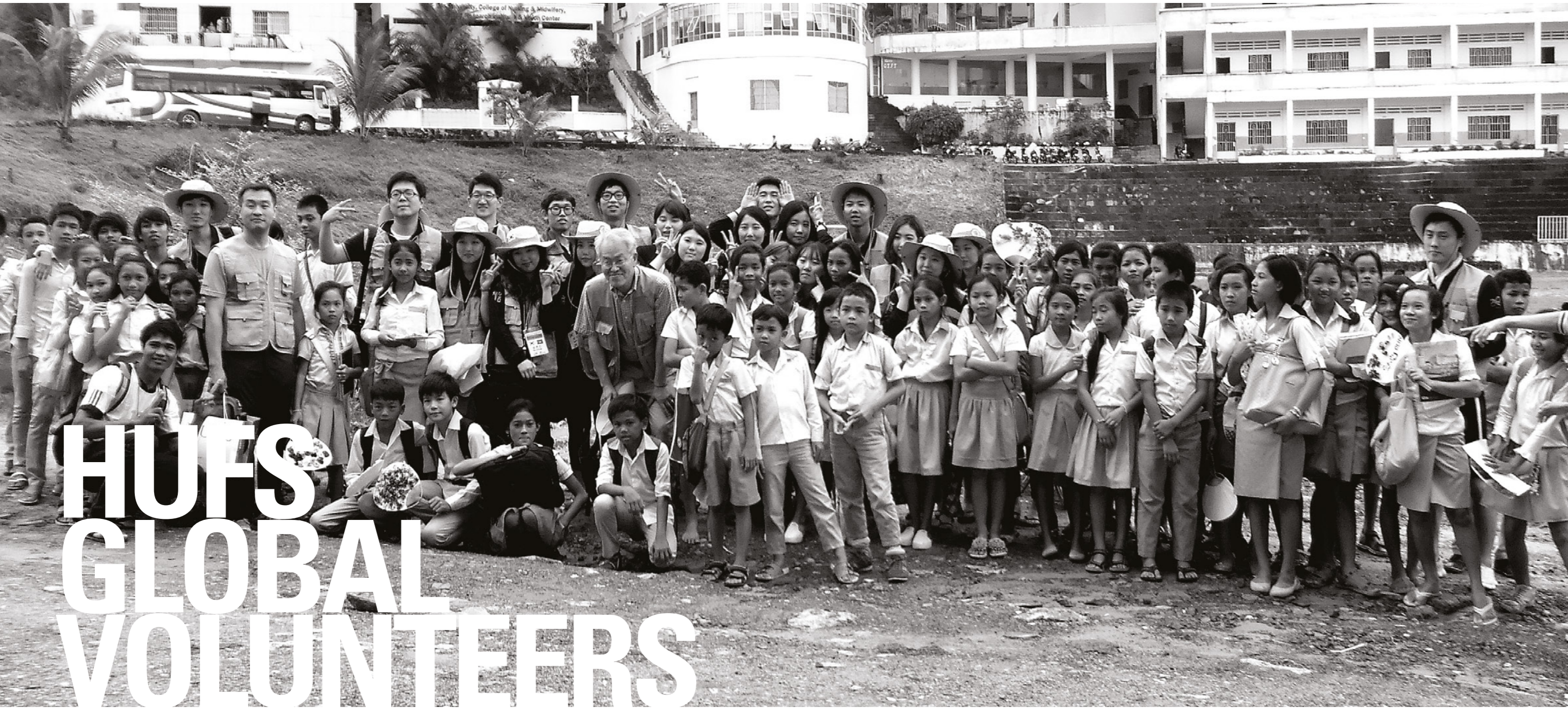
말씀하신대로 화학은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학문입니다. 현재 핵의학 분야에서만 외대 출신이 여러 명 종사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교수 등 많은 동문들이 의학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지요. 제가 몸담고 있는 의학 분야를 예로 들었는데, 타 분야를 총망라하면 우리 동기들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화학과 출신자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혜택은 아니지요. 자신의 꿈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처음의 열정을 유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당장 뚜렷한 목표가 없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단, 미래를 모색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되겠지요. 노력을 하는 그 순간에는 느끼기 어렵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당시의 열정과 희망은 반드시 보답을 합니다.

HUFS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이루어가는데 외대인이 가진 강점은 무엇 일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 목표나 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국제화의 마인드가 외대인이 공통으로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특수한 배경을 통해 체득되는 국제화의 마인드는 외대인만이 누릴 수 있는 정신적 유산임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국제화의 마인드는 작게는 자신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발전시키고, 크게는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외대는 현대어문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 있지요. 여기에 사심어린 애정을 보태어, 외대의 이공학 분야의 약진을 기대하며 후배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제 개인적인 연구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느 순간부터 연구목표를 굳이 설정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기술을 발명해낸 것으로 목표가 달성된 것이 아니더라도, 분야의 특성상 거기에서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실제 의학기술로 실용화해서 환자들의 삶에 반영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의료 혜택을 누리는 환자들이 한 사람씩 늘어가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목표 갱신이었어요. 현장에서 매순간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저는 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외국어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잘 할 수 있지만, 특수한 배경을 통해 체득되는 국제화의 마인드는 외대인만이 누릴 수 있는 정신적 유산임에 분명합니다.”





HUFs GLOBAL VOLUNTEERS

**나눔과 상생의 외대인,
45개 언어를 기반으로
전 세계 소통 네트워크 마련에 앞장서다**

우리대학은 글로벌 명문 사학이라는 명성에 맞춰 재학생들의 해외봉사활동을 통한 국제문화 체득 및 향후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2011년 5월 1기 'HUFs 글로벌봉사단'을 창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재학생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총 14개 팀, 약 300명의 학생들이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HUFs 글로벌봉사단'은 생소한 언어를 쓰는 국가에 파견되어 해당 국가의 모국어로 소통하며 온정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글로벌 봉사단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45개 외국어를 교육하는 국내 제1의 글로벌 대학으로서 진리, 평화, 창조 의 건학이념을 세계 속에 구현하기 위해 'HUFs 글로벌봉사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유창한 외국어 실력은 물론, 심도 깊은 전공지식과 더 나아가 이민족과 타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와 상생의 정신까지 겸비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서울캠퍼스
HUFS 글로벌 봉사단

시기	국가	인원	시기	국가	인원
2011년 하계	인도네시아	21명	2012년 동계	라오스	21명
2011년 하계	멕시코	20명	2013년 하계	태국	31명
2011년 동계	인도	21명	2013년 동계	베트남	21명
2012년 하계	인도네시아	22명	2014년 하계	캄보디아	25명

글로벌캠퍼스
HUFS 글로벌 봉사단

시기	국가	인원	시기	국가	인원
2011년 하계	캄보디아	20명	2013년 하계	캄보디아	20명
2011년 동계	라오스	20명	2013년 동계	인도네시아	20명
2012년 하계	라오스	20명	2014년 하계	라오스	20명